세 부처님 설법 장면 그린 세 폭의 후불벽화

사찰벽화 명작순례

⑬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삼존불과 후불벽화.

불화의 붓질에 버금가는 명작 벽화

법당의 불상 뒤의 벽을 '후불벽'이라 한다. 대부분 고운 흙으로 마감한 흙벽이지만 청주 월리사 대웅전처럼 나무판으로 엮은 판벽도 있다. 후불벽은 불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상으로의 시각적 집중성을 유도하는 기능성을 두루 가진다.

후불벽에는 통상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그린 불화를 내건다. 불상 뒤 후불벽에 내건 불화를 '후불불화'라 한다. 후불불화는 대부분 비단(견본채색)이나 삼베(마본채색) 등의 천에 그린 그림이다.

특별하게는 문경 대승사 대웅전처럼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나무판에 새긴 후불목각탱도 있고, 드물게는 후불벽에 그린 후불벽화도 있다. '후불불화의 조각화'인 목각탱은 종종 볼 수 있다. 100년 이상 된 후불목각탱은 전국에 걸쳐 10여 점 현존한다.

그에 비하면 후불벽화는 매우 희귀하다. 현존하는 후불벽화는 네 점에 불과하다. 그 네 점은 다음과 같다.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화: 아미타여래설법도(국보), 1476년. △안동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 석가모니불 영산회상도(보물), 1435년경. △경주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화: 영산회상도(견본채색) 및 사천왕 벽화(보물), 1769년.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 아미타불-비로자나불-약사불 삼존 설법벽화, 1840년.

불국사 대웅전 후불불화는 중앙의 영산회상불화와 좌우 사천왕 벽화를 결합한 독특한 형식인 까닭에 온전한 후불벽화라 보기 어렵다. 또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벽화는 따로 떼내서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까닭에 후불벽화의 현재성을 여의었다.

온전하게 현존하는 후불벽화는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화와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 두 점뿐이다.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는 특수하고 희귀하다. 다른 세 곳의 후불벽화는 한 분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구현한다. 선운사 후불벽화는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불 세 분의 설법 장면을 각각 독립적으로 그렸다. 세 부처님의 설법회상을 구현한 유례없는 세 폭의 대형 후불벽화다. 하나의 법당에 세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각각 그린 국내 유일의 삼폭 후불벽화로 평가된다. 더구나 불화의 붓질에 버금가는 명작 벽화다. 언뜻 보면 천에 그린 불화로 착각하기 쉽다.

1840년 11명의 화원이 그린 벽화

선운사 대웅보전은 1614년에 중건한 17세기 건축이다. 1633년에 흙으로 조성한 약사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의 소조삼존불을 봉안하고 있다. 삼존불의 존명은 비로자나불 대좌 밑면의 묵서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세 불상은 모두 2.5m가 넘는 대형 불상이다.

불상을 제작한 화원은 당대에 이름을 떨치던 조각승 무염 스님이었다. 후불벽화는 세 부처님의 대형 불상에 짝 맞춰 각각 독립된 화면으로 그렸다.

향좌측부터 아미타여래설법도-비로자나불삼존벽화-약사여래설법도의 형식으로 펼쳤다. 벽화 크기는 동쪽의 약사여래도가 472×318㎝, 중앙의 비로자나불도가 476×430㎝, 서쪽의 아미타불도가 495×320㎝다. 중앙의 비로자나불벽화가 가장 크다.

벽화를 그린 연도와 제작 주체, 시주자 명단 등은 벽화 속 화기를 통해 확인된다. 화기는 세 폭의 벽화마다 하나씩 직사각형 하얀 바탕을 만들어 기록했다.

비로자나불벽화의 화기에는 제작 연도와 '연화질(緣化秩)'을 통해 증명, 화주, 화원 명단 등을 기록했고, 아미타여래설법도와 약사여래설법도의 화기에는 '시주질(施主秩)'을 통해 시주자 명단을 밝혔다.

화기의 '연화질'은 불사에 인연이 된 사람들의 명단 목록을 말하고, '시주질'은 불사에 재물 등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한다. '질(秩)'은 차례, 또는 목록의 의미다.

'무장현선운사대법당중수기' 현판과 벽화의 화기에 따르면 벽화는 도광 20년(1840년) 8월에 세 축의 존상을 그려 법당에 봉안했다. 1839년 여름 큰비로 법당 오른쪽 두 칸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듬해 봄, 여름에 걸쳐 복구하면서 벽화와 단청도 새로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불벽화는 성찬·의홍 스님 등이 화주로 나서고 붓의 신선이라 불린 의겸 스님의 맥을 이은 원담·내원·익찬 등 11명의 화원이 참여해 조성했다.

> **불상에 짝 맞춰 조성한 후불벽화**
> **장수와 복, 득다남, 극락왕생 발원**
> **빗반자 천정에 신령한 오방색 구룡**
> **벽화 · 복장낭 · 진언다라니 일체화**

11명의 전문 화원이 참여한 벽화와 단청불사는 후불벽화와 천정의 별지화 등에서 수준 높은 예술미를 갖춘 붓질을 남겼다. 특히 사방 천정의 빗반자에 현존하는 용 벽화는 한국산사 용 그림을 대표할 만한 수작들이다. 선운사 대웅보전 빗반자 천정의 용은 모두 9점으로 적룡, 청룡, 황룡, 백룡뿐만이 아니라 흑룡도 있다. 오방색의 구룡이다. 그 형상은 모든 방위의 수호력을 갖췄다는 상징적 의미다. 천정에 구룡을 조성한 것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아홉 용이 오색향수로 부처님의 몸을 씻긴 설화에서 모티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용 벽화는 하나같이 대형 작품이다. 역동적인 용틀임이 공간을 압도한다. 천정에서 폭풍우처럼 덮치는 기세다. 법당 천정에 용틀임하는 용의 진면목들을 완성해 놓았다.

세 폭의 삼불벽화는 저마다의 시주자에 의해 조성됐다. 중앙의 비로자나불벽화는 고창 마명에 사는 오경장이라는 사람이 장수와 부귀, 다남자 득남을 발원하는 단독 시주로 마련됐다. 향좌측의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고창의 관직에 있는 사람과 그 부인 등 민간인 중심의 시주로 이뤄졌고, 향우측의 약사여래설법도의 시주자는 성찬·경찰 등 20명의 이름이 모두 두 자인 것으로 보아 스님들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주자들은 비구의 노소와 시주의 대소를 떠나 불사 인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천수와 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연화대에 올라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고 있다.

복장낭과 다라니까지 갖춘 세 폭 벽화

세 폭의 벽화는 구성에서 같은 구도와 인물 배치를 했다. 화면의 중심부 전면에 부처님을 압도적으로 크게 그린 후 남은 여백 좌우와 상단에 꼭 필요한 성중들로만 부처님을 원형으로 빙 둘러싸는 배치 구도로 통일했다.

벽화마다 부처님과 두 협시보살의 삼존이 화면의 중심을 이룬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 네 분씩 대칭 구도로 배치했다. 벽화마다 9분이 등장한다. 벽화별 존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향좌측(서) 아미타불설법도: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 보살 2, 가섭, 아난, 팔부신중 2. △중앙 비로자나불삼존도: 보현보살-비로자나불-문수보살, 가섭, 아난, 사천왕. △향우측(동) 약사불설법도: 월광보살-약사여래-일광보살, 보살 2, 제자 4.

이 전체 구성에서 특별한 점은 문수, 보현 두 보살의 신광에 있다. 다른 보살에는 둥근 두광만 있을 뿐 몸에서 발광하는 신광은 없다. 신광은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하나로 특별한 위신력이다.

그런데 왜 두 보살에게는 신광을 그려 넣었을까? 그것도 온몸을 감싼 신광이다. 석가모니불은 무상정등각을 얻은 순간 법신불이 되셨다. 그 정각의 경지에 보살과 천인들을 상대로 〈화엄경〉을 설하셨다. 부처님은 침묵과 광명을 놓았을 뿐이다. 대신 위신력으로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을 부처님 경계의 삼매에 들게 하여 대리 설법하게 하셨다. 두 보살의 몸에 특별히 부처님 경지인 거신광을 그린 공덕장엄 속에 화엄교의가 반영돼 있다.

벽화 속에 교의가 담긴 장면이 두루 있다. 아미타불설법도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세부 표현도 그중의 하나다. 〈관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불께서 아난과 위제희 왕비에게 두 보살을 설명하신 대목이 벽화에서 그대로 구현돼 있다.

"관세음보살의 정수리 위에는 보배로 된 천관을 쓰고 있으며 그 천관 속에 한 분의 화신불이 계신다." "대세지보살의 천관에는 5백 개의 보배 연꽃이 있고, 육계 위에는 보병 하나가 온갖 광명을 담고 있느니라."

벽화에서 관세음보살은 보관에 아미타불 화신불 한 분을 모셨고, 대세지보살은 천관의 연꽃 위에 보병을 갖추고 있다. 비로자나불벽화 속 사천왕의 배치도 법도 있게 표현했다. 향우측에서 향좌측 방향으로 북 다문천왕(비파)-동 지국천왕(칼)-남 증장천왕(용의 보주)-서 광목천왕(보탑)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정립상을 보여준다.

벽화 속 보살의 표현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발을 딛고 서 있는 연화대의 표현이다. 한결같이 긴 연꽃 줄기를 가진 연화대가 아래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솟구쳐서 보살의 발을 떠받치는 형세다. 그것은 무수한 시간 동안 닦아온 보살행의 원력에 다름없다.

세 폭의 후불벽화에서 가장 특별한 특징은 벽화와 복장낭, 진언다라니를 일체화시킨 점이다. 다라니는 '라다나 다라야야'로 시작되는 〈천수천안관자재보살신묘장구대다라니〉다. 세 벽화 위에 흰색 직사각형 묵서란을 하나씩 만든 후 신묘장구대다라니 전문을 범자로 적어 신령한 힘을 불어넣고 있다. 불화나 벽화 위에 건 복장낭에는 보통 불경이나 진언, 시주 발원문 등을 넣는다. 불상의 복장에 넣는 후령통과 마찬가지로 불화, 벽화에 신성한 힘과 생명력을 부여한다.

국내 유일의 세 폭 후불벽화가 유례가 없는 신묘장구다라니와 복장낭까지 두루 갖췄다.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한 공덕장엄이다.



노재학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